

# 전북형 산업도시 구축 성과 가시화

《JUC 트라이앵글》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사업 기반 3년간 2868억 유치  
새만금, 전주·완주, 익산·정읍 권역별 산업 육성  
대형 국책사업 확보...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입증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 대학30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최근 3년간 총 2868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지원사업을 유치하며 전북형 산업도시 구축(JUC Triangle) 성과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핵심 목표인 '지역·대학 동반성장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권역별 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해 산학연캠퍼스 구축을 추진해 온 결과다. 전북대는 새만금, 익산, 정읍, 전주, 완주를 잇는 JUC 트라이앵글(Triangle)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연구·교육·실증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장해왔다.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세부 추진 과제로 새만금에 이차전지·센서반도체·방위산업, 전주와 완주는 농생명·그린수소, 익산과 정읍은 펙트바이오·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시켜 육성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은 대형 국가재정지원 사업 유치로 이어졌다. 전북대는 최근 3년간 반도체공동연구소(802억원),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289억원),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사업(490억원) 등 미래 전략산업 전반을

이우르는 국책사업을 확보하며 글로벌 대학30 모델의 실행력을 입증했다. 특히 반도체공동연구소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이 지향하는 개방형 산학연 협력 플랫폼의 대표 사례로, 대학·기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오픈형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공정·장비 전반의 협력 연구와 기술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직자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배출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역시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증 중심 연구를 통해 제조, 로봇,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며 글로벌대학30 사업의 기술산업 연계 성과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익산·정읍 권역의 펙트바이오 산업과 직결된 사업으로, 규제 완화 기반 실증과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구축한 산학연 협력 기반이 최근 3년간 2868억원 규모의 국가재정지원사업 유치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JUC Triangle을 중심으로 지역과 산업,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혁신 모델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관내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전북 장애 학생 e페스티벌 전주지역대회 및 미래교육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했다.

##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미래교육 체험 기회 확대

전주교육지원청, 2026 전북 장애 학생 e페스티벌 전주대회·미래교육체험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교육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지난 5일 관내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전북 장애 학생 e페스티벌 전주지역대회 및 미래교육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정보경진대회 한컴타자 부문과 e스포츠대회 카드라이너 부문 등 2개 공식 종목에 학생 35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행사와 함께 운영된 미래교육 체험프로그램에는 25개교에서 11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무안가게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체험하며 디지털 기술과 미래 교육 콘텐츠를 경험했다.

특히 전국 장애 학생 e페스티벌 시범종목인 닌텐도 스위치 기반 '저스트 댄스' 체험 부스에 마련된 학생들이 경쟁을 넘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대회에 참가한 한 특수학급 교사는 "도 예선대회를 앞두고 지역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대회 분위기를 미리 경험하고 자신감을 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채선영 교육장은 "이번 행사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디지털 역량을 기르고 서로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학생들의 '여행 스케치'

전북대 예술융합창작 프로젝트 전시 'GATE' 9~10일 진수당서 개최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여행을 주제로 한 예술 융합 창작 전시를 선보인다. 전북대학교 예술융합창작프로젝트 강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전주공업고등학교 청운관에서 2026년 직업계고 공직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시 'GATE-목적지보다 그 사이의 순간들'이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전북대학교 진수당 글로벌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여행'을 주제로 학생 창작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단편영화와 일일여행가, 경로이탈, 970번 버스, 굿즈 기획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된다.

전시에서는 여행을 단순히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가 아닌 선택과 욕망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으로 재해석한다. 익숙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방향을 고민하고 여행의 끝에서 다시 자신과 마주하는 경험을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표현했다.

특히 바쁜 일상과 현실적인 여건 등으로 여행을 꿈꾸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멀리 떠나지 않아도 자신만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시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일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직업계고 학생 공직 진출 지원 위한 진로 탐색의 장

전북교육청, '2026 직업계고 공직설명회' 개최  
인사혁신처·국방부·전북자치도청 등 참여  
공무원·군 부사관·군무원 등 진로 정보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 탐색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전주공업고등학교 청운관에서 '2026년 직업계고 공직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공직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군 부사관·군무원 등 다양한 공공

부서 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인사혁신처와 국방부, 전북특별자치도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도내 직업계고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기관별 역할과 채용제도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에서는 지방직 공무원 채용제도와 직무, 근무환경을 비롯해 군 부사관·군무원 채용 분야와 지원 절차, 기관별 채용 일정 및 응시 자격,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현장 공무원과의 간담회도 마련돼 공직생활 경험과 시험 준비 과정, 수험 전략 등을 공유하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공직 채용 절차와 준비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관·군무원 채용 분야와 지원 절차, 기관별 채용 일정 및 응시 자격,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현장 공무원과의 간담회도 마련돼 공직생활 경험과 시험 준비 과정, 수험 전략 등을 공유하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공직 채용 절차와 준비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청소년 환경 감수성·생태전환 역량 키운다

전북교육청, 전북 시네마그린틴 운영... 토크콘서트·감상문 공모전 등으로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들의 환경 감수성과 생태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환경재단과 함께 2026 전북 시네마그린틴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환경영향을 활용한 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세대공감 환경영화 토크콘서트'와 학생 대상 '시네마그린틴 감상문 공모전'으로 구성된다. 환경의 날을 기념해 7일에는 전주대

학교 온누리홀에서 '정재승 교수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환경영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행사에는 도내 학생과 학부모 3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환경 다큐멘터리 우리 땅을 지키는 노래를 관람한 뒤 정재승 교수와 함께 환경문제와 미래사회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상영작은 아르헨티나의 한 농촌 마을에서 농약 살포로 인한 환경문제를 음악을 통해 일리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교

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환경문제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8일부터 30일까지는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북 시네마그린틴 감상문 공모전'이 진행된다. 환경영화 감상과 환경 실천 의지를 주제로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접수하며, 우수작 선정자에게는 교육감상과 환경재단 이사장상 등 총 2개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전주대, 학부모 대상 '2027 수시모집 대입 성공 전략 특강'

전주대학교 입학처가 자녀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를 위해 오는 20일 교내 온누리홀에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이해 및 지원전략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입 전형 속에서 학부모들이 수시모집 지원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진학을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자녀의 진로와 대입을 함께 고민하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다. 특강은 20일 오후 1시 2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주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최승후 연천고 교장이 '학교 활동과 연계한 학생부 기재 전략'을 주제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노하우를 전한다. 이어 정태연 전주대 입학처장이 '2027 전주대학교 수시모집 전형'을 안내하며, '대입전략 수시모집'의 저자인 임병문 인천제고교 33부

장교사가 '2027 대입 성공 전략과 주요 대학 분석'을 강연한다. 최승후 교장은 '의대·약대·수의대·간호대 진로전략특강' 등 다수의 진학 지도서를 집필한 입시 전문가로, 입학사정관 연수 강의·IBS 자기소개서 강의·경기교육청 대입리더교사단 의약취업예 연구팀장 등을 역임했다. 특강 신청은 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jju.ac.kr)에서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로그인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예비 교사 교원임용 준비 지원

전북교육청, 18~19일 찾아가는 캠퍼스 설명회 개최  
전주교대·전북대서 진행... 수험생 의견 반영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비 교사의 교원임용시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수험생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8일과 19일 전주교육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서 '2027학년도 교원임용 찾아가는 캠퍼스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임용시험 원서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유의 사항 마스터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초등 및 특수학교(유·초) 분야 설명회는 18일 오후 6시 30분 전주교대 황화당에서 진행된다. 중등·특수(중등)·비교과 분야 설명회는 19일 오후 6시 30분 전북대 사범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설명회에 지난해 수험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시험 준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고, 기간과 교

사과 사립유치원 교사 등의 참여 편의를 고려해 이간 시청대로 운영한다. 또한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학교급별을 일정 없이 분기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설명회에서는 2027학년도 교원임용 시험 일정과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원서 접수 가이드와 1차 시험 유의 사항 영상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19일 중등 설명회에서는 체육과목 응시생들의 관심이 높은 실기평가 구기종목 공개 추첨도 진행된다. 축구·농구·배구 가운데 2개 종목을 선정하는 추첨으로, 현장 참석자가 직접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대학별 선착순 200명 모집 시 조기 마감된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수준별 교과보충 프로그램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춘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부터 중위권 학생까지 학습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기초학력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 1~3명을 소그룹으로 구성해 방과 후 개별 수준에 맞는 교과 학습 지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351개 학교에서 1,826개 프

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2,631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중위권 학생을 위한 교과보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맞춤형 학습 성취도 자율평가 2~3수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과 학습 지도와 학습 코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337개 학교에서 1,327개 프로그램을 통해 2,661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위권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초등학습플래너 '빛나라! 오늘해!'와 교과별 탐구노트인 '초등어휘사전 1600, 수학개념노트 등 학력신장 사업과 연계해 운영된다. /오상근 기자

## 국립군산대, 피아니스트 앙상블 특별 연주회 개최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 음악과는 지난 5일 국립대학육성사업 '전 지역 진로탐색 시점'의 지원을 받아 전문 피아니스트 앙상블 'ARMONIA'의 특별 기획 연주회 Resonanc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학생들의 전공 역량 강화와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규연 교수가 이끄는 ARMONIA와 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ARMONIA는 이탈리아어로 '조화와 어울림'을 뜻하며, 국립군산대 음악과 졸업생과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전문 피아니스트 앙상블이다. 공연에서는 쇼팽의 에튀드와 환상곡을 비롯해 베토벤 프로코피예프, 글린카 슈만 등 시대를 아우르는 클래식 피아노 명곡들이 연주됐으며, 피날레는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장식됐다. /문신·김만호 기자